

기획 시리즈 / 한인사회 기관·단체 역사탐방

LA 한인회 <상>

반세기 동안 이민자들 권익·화합의 구심점

LA 한인회는 어느덧 불혹을 훌쩍 넘어 46년의 역사를 가진 한인사회 대표기관으로 자리 잡아왔다. 창립 반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인회는 1대 회장단에서부터 현재 32대 회장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한인 인사들이 몸담고 일하며 한인사회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과 기여를 해왔다. 그 과정은 숱한 스토리와 우여곡절 속에 공과 과가 함께 공존해 온 영욕의 역사였다. LA 한인회는 이제 한인사회의 급성장과 함께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이민 트렌드 가운데에서 존재가치를 다시 찾고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LA 한인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2회에 걸쳐 조명해 본다. (김형재 기자)



제1대 조용삼 회장 제2대 이경동 회장 제3대 박규현 회장 제4대 소니아 석 회장 제5대 조지 최 회장



제6대 김종식 회장 제7대 양화직 회장 제9-10대 김기성 회장 제11대 구한모 회장 제12-15대 이만휘 회장 제13대 김명균 회장



제14대 김시면 회장 제16대 김죽봉 회장 제17대 이기명 회장 제18대 김완을 회장 제19대 황제선 회장 제21대 김영태 회장



제22대 장성길 회장 제23대 조인하 회장 제24대 서영석 회장 제25-26대 하기환 회장 제27대 이용태 회장 제28대 남문기 회장



제29-30대 스킨렛 임 회장 제31대 배무한 회장 제32대 제임스 안 회장

비뉴에 7만달러를 주고 매입한 자체 건물이 있었으나, 재정난으로 용자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결국 1967년 6월 매각하고 여기서 남은 4만달러는 '건물 매입 때에만 사용한다'는 조건 속에 센터기금 관리위원회로 넘겨진 뒤 나중에 현재의 한인회관 매입 때 종자돈이 됐다.

이처럼 회관 매각은 한인센터와 한인회 통합의 계기가 돼 이후 1968년 1월 남가주 한인회와 한인센터는 '재미한인거류민회'로 통합하고 오늘날 LA 한인회 역사를 시작했다. 이후 재미한인거류민회는 1972년 남가주 한인회로 명칭을 다시 변경했고, LA 한인회관 명칭은 1982년부터 공식 명칭으로 사용돼 왔다.

당시 조용삼 남가주 한인회 초대 회장은 통합단체 초대 회장(이사장 송영찬)에 취임했다. 조 초대 회장은 이후 한국 농업개발공사 고문으로 근무하기 위해 회장직을 사퇴하고 한국 행에 올랐다가 돌아와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졌고, 이처럼 회장 공석사태가 발생하자 이경동 부회장이 회장대행을 맡았다. 때문에 LA 한인회는 초대 회장으로 조용삼·이경동씨를 동

이 됐다. '여결'로 통했던 석 회장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호탕하고 과감한 성격으로 남성들을 압도했으며, 타운 일에는 거의 대부분 관여할 정도로 활동가였다. 특히 타고난 배짱과 주류사회까지 뻗어 있는 폭넓은 인맥은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그러나 석 여사는 이사진과의 불협화음으로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자진사퇴, 5인 대책위가 잔여 임기를 꾸려갔다.

1972년 5대 회장에 오른 조지 최씨는 한인 부동산 업계의 대부로 불리는데 그는 나중에 현재의 한인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데도 깊숙이 관여했다. 최씨의 뒤를 이은 6대 회장 김종식씨는 한국화학 집안 출신이란 사실이 더 유명했다. 그는 또 회장직을 마친 뒤 귀국, 유정희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하며 한인회장 출신 정치인 1호를 기록하기도 했다.

1971년 4대 회장 선거에서는 소니아 석(작고) 여사가 박준환 후보를 누르고 선출돼 최초의 여성 한인회장

(다음 주에 계속)

1965년 유학생 주축 '남가주 한인회'로 시작 '한인센터'와 통합 거쳐 1982년 현 명칭 사용 소니아 석 4대 회장, 주류사회와 본격 교류

■46년의 역사

현재 LA 한인회는 그 기본적인 목적과 역할을 '한인들의 권리와 공익을 보호하고 주류사회와 한인사회를 연결하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단체의 존재 이유가 미국에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사는 한인 이민사회의 구성원들을 돕고 한인사회가 커뮤니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한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LA 한인회는 그러한 면에서 이민 초창기 남가주 이민 선조들의 활동 구심점이었던 대한인 국민회와 대한인 동지회를 계승해 1960년대 중반

첫 활동이 시작됐고, 본격적인 제2의 이민물결이 시작된 60년대 후반을 거쳐 현재의 LA 한인회관을 마련하게 된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태동기와 정착기를 거치게 된다.

■1960년대 태동기

LA 한인회는 유학생 출신이 주축이 돼 1965년 5월1일 결성한 '남가주 한인회'로 시작했다. 당시 LA의 한인 인구는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수도 수천여명 선이었다.

당시 남가주 한인회의 창립멤버는 한국에서 유학 와 1960년대 초반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조용삼씨(작고), 육사교관 생활을 접고 1956년 텍사스 주립대로 유학 왔던 이경동씨, 역시 유학생 출신으로 미국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연세대에서 강의를 했던 김하태 목사(작고), 애국부인회 회장을 지낸 이화목씨(작고), 고려대 출신으로 현재의 한인타운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했던 송영창씨(작고), 그리고 송씨의 처남으로 의사였던 김창하씨(작고), 그로서리 가게를 운영했던 유재신씨(작고) 등이 있었다. 또 이들과 뜻을 함께 했던 에스더 백씨와 오봉운 씨가 있었다.

이 당시 남가주 한인회의 설립목적은 이보다 3년 먼저 만들어졌던 이민 선조 후손들의 조직인 '남가주 한인센터' (이사장 김호·회장 송철, 1962년 6월 비영리법인 등록)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남가주 한인센터는 한인사회의 화합과 이민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남가주에서 활동하던 국민회와 동지회, 애국부인회 등 독립운동 단체 회원들이 중심이 돼 조직됐다. 여기에는 초기이민 2세로 중가주 리들리에서 씨 없는 복숭아를 만들어 부를 축적한 김호씨(작고)와 동지회 원로 송철씨(작고),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이자 영화배우였던 필립 안씨(작고) 등이 참여했다.

한인센터는 1963년 2525 번 애

● LA 한인회 역대 회장단

순서	취임연도	회장	이사장
1대	1968	조용삼 이경동	송영찬
2대	1969	박규현	이화목
3대	1970	김형일	송철
4대	1971	소니아 석	박규현
5대	1972	조지 최	진형기
6대	1973	김종식	김종식
7대	1975	양화직	양화직
8대	1976	김형일	김형일
9대	1977	김기성	양화직
10대	1978	김기성	양적규
11대	1979	구한모	이삼웅
12대	1980	이만휘	김제호
13대	1981	김명균	라수명
14대	1982	김시면	이재근
15대	1982	이만휘	김죽봉
15대	1983	잔 김	김죽봉
16대	1984	김죽봉	윤창기
17대	1985	이기명	조의성
18대	1988	김완을	이정원
19대	1989	황제선	김영태
20대	1990	이중원	이정원
21대	1992	김영태	김제호
22대	1994	장성길	서영석
23대	1996	조인하	김유현
24대	1998	서영석	이혁
25대	2000	하기환	이영송
26대	2002	하기환	정인철 안국찬
27대	2004	이용태	강상윤
28대	2006	남문기	스킬렛 임
29대	2008	스킬렛 임	이창엽
30대	2010	스킬렛 임	김재권
31대	2012	배무한	서권천
32대	2014	제임스 안	강일한

기획 시리즈 / 한인사회 기관·단체 역사탐방

LA 한인회 <하>

도약·격동기 거치며 한인 권익 신장 앞장

어느덧 불혹을 훌쩍 넘어 창립 반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LA 한인회는 지난 46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인사회의 급성장과 함께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이민 트렌드 속에서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기로에 놓여 있다. LA 한인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해보는 기획 시리즈 두 번째 편으로 1970년대 중반 현 LA 한인회관 건물 구입 후 현재까지의 역사와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살펴본다.

(김형재 기자)



LA 한인회는 1975년 현재의 한인회관 건물을 구입하며 도약을 맞았다. 위 사진은 1975년 구입 당시 한인회관의 모습. 왼쪽은 39년이 지난 현재의 한인회관의 모습.

■1970년대 중반 도약기
▲현 한인회관 건물 구입
1975년은 LA 한인회에 큰 변화가 불어온 연도로 기록된다. 전년도 연말인 1974년 11월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7대 한인회장 선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00여명이 투표에 참가. 양회직시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양 회장은 취임 직후 한인회관 매입에 박차를 가해 1975년 10월8일 30만달러에 매입 절차를 마무리 짓고 11월22일 감격의 개관식을 가졌다.

현 LA 한인회관 건물 구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일화가 있었다. 1971년 4대 회장이었던 소니아 석(작고) 여사가 1975년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각하, (한인회관 마련을 위한) 돈이나 좀 주세요"라고 요청해 지원을 받게 된 일화는 유명하다.

그해 남가주 한인상공회의소 모금방문단의 일원으로 이학조 상의

회장, 이민취, 최희만, 배기생씨 등과 함께 청와대를 예방한 석 여사는 박 대통령에게 대담하게도 한인회관 건립비용 지원을 요청했고, 석 여사의 배포에 깊은 인상을 받은 박 대통령은 즉석에서 15만달러 지

웨스턴가의 현재의 건물을, 석 여사는 윌셔가의 건물을, 상공회의소 측에서 나온 인사는 7가와 알바라도 길의 건물을 제시하며 협의를 계속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회직 회장은 당시 LA 총영사였던

않으면서도 발전을 거듭했던 한인회는 구 회장을 끝으로 70년대를 마무리 지었다.

서영석 회장은 한인사회와 합심해 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앞장섰다.

우여곡절 끝 1975년 현 한인회관 매입·입주 주류사회와 채널, 한인 커뮤니티 입지 확대 본국 정치상황·회장선거 내홍 따라 분열도 한인사회 급성장 속 위상·역할 변해야

원을 약속하게 된다. 이후 석 여사를 위원장으로 한인회관건립위원회가 구성돼 건물 물색에 나서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위원회 구성원들 중 조지 최 전 회장은

박영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박 총영사는 석 여사 등을 설득해 웨스턴가의 건물 매입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후 에스스로에 들어가면서 법정 소송 해프닝 등을 겪은 뒤 결국 시가 30만달러에 매입이 완료됐다.

▲주류사회와 본격 채널
1975년은 LA 한인회가 최초로 LA 시장실과 공식 채널을 만들고 주류사회와의 본격 교류에 나선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양회직 회장은 흑인 최초의 탐 브래들리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LA에 한인이 약 8만명 거주한다며 시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후 1976년 8대 회장에 취임한 김형일씨는 LA 한인회 역사상 첫 중임회장 기록도 세웠다. 김기성씨는 9-10대(1977-78년)를 연임했으며, 1979년 구한모씨가 11대 회장에 올랐다. 김기성씨는 한국 민주화 운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한국정부와 미묘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크고 작은 일이 끊이지

■1980-90년대 격동기
1980년대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열기와 맞물려 LA 한인회도 변화와 갈등의 시기를 겪었다. 12대 이민취 회장은 친 박정희파로 분류돼 야당 지지자들과 대립하기도 했다. 또한 12-15대 한인회는 잦은 내부 갈등과 부정선거 여파로 사실상 업무중단 사태에 빠졌다.

침체기를 겪던 한인회는 1984년 LA올림픽(LA 한인사회 한국 대표선수단 지원)을 계기로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되는 듯 했지만 1987년 18대 회장선거 투표소에 경찰이 출동하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

이 시기 LA 한인회는 한인사회 대표단체란 역할을 망각하고 내부 권력 투쟁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인사회 봉사단체로 시작했지만 한인회가 갖는 상징성과 한국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신임 회장 선거철마다 극심한 갈등과 선거 후유증을 겪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한인회는 1992년 429쪽 동 직후 구심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대 이종원 회장과 21대 김영태 회장은 21대 회장직을 놓고 법적소송까지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21대 김영태, 22대 장성길 회장들은 퇴임 후 한국 국회의원 도전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1998년 24대

■새로운 밀레니엄과 한인회의 미래
2000년대 한인회는 회장 선출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02년 26대 회장선거는 출마 후보 간 자격 논쟁이 붙었고 2006년 28대 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 중 가장 치열하고 선거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기록됐다.

2010년 30대 회장선거 때는 결과에 불복한 박요한씨가 또 다른 새로운 한인회를 출범시키는 해프닝을 벌였다가 결국 유아무야되고 말았다. 또한 28대 회장 선거 이후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후 29-32대 한인회장들은 각종 시비 속에 모두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같은 46년 역사의 LA 한인회는 본연의 역할은 기본 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인회 공식 웹사이트(www.kafila.org)에 따르면 한인회는 첫째 주류사회와 한인사회 연결, 둘째 한인들 권리와 공익을 보호, 셋째 이민자 지원서비스, 넷째 분쟁 해결 및 중재, 다섯째 차세대 한인 지도자 양성에 나선다.

이밖에 소비자 관련문제 상담, 통역 및 서류작성 지원, 차세대 한인 지도자 양성, 정보제공 및 확인, 고용추천, 법률 및 사회복지 제도 상담, 세미나 및 워크숍, 사회복지 신청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 7월1일 제32대 LA 한인회장에 취임한 제임스 안씨는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봉사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며 한인회 재탄생을 약속했다.



1971년 소니아 석 전 LA 한인회장(왼쪽 세 번째부터)이 한인회관 매입 지원금을 요청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